

#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 놓고 갈등 고조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해당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지역 민간 단체인 다도지역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에 자체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부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민간사업인 공모·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고려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2021년까지 나주호 120만100㎡(만수면적 15%) 부지에 총 1800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100MW급 전기 생산시설 1개소를 갖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나주시 연간전력사용량의 11%인 13만1404MWH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다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다도지역발전협의회와 일부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20% 지분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자체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환경청, 농림부, 산자부의 법규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에 해석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가 입수한 농어촌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중단된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규모를 당초 100MW에서 60MW로 축소하고 사업형식도 자체사업에서 공모·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추진했다 중단...민간 공모·제안사업 변경 고려 지역발전협 참여에 주민들 "공청회도 없고 경관 훼손" 반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지역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진 반대측이 내건 현수막.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이 공공자산을 수익성 모델로 제안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제3차 공모로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지 선정은 주민 찬성과 경관, 환경, 안전 등 4가지 원칙하에 지역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대상지를 사업 모델로 개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나주호가 사업대상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국내 발전사업은 법 규정 등이 까다롭게 얽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30% 이하"라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민간업체에 사업설명회 등으로 금융회해가 없도록 주

의할 것을 지난 6월 지사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발전협의회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파괴보다 오히려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민들이 지분에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공고가 나올 경우 공모·제안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출향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설명한 후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위임장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을 반

대하는 주민들과 출향민들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나주호에 경관을 훼손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민들이나 출향민들에게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등 반대측은 "정정 나주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로 전락하게 된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익배당금이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금전적 이익으로 승낙하기 보다 후세에게 청정지역 자연 그대로를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또 "공모·제안사업이 찬성 측이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올 투자 수익이 기대치보다 높지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아니라 농촌 고령화로 출자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해 자칫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사업 추진방식에 따르면 공모·제안사업에서 투자 및 공모 제안시 농업인의 투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가 자기자본(출자금 포함)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20%이지만 ▲총사업비 중 타인자본(90% 이상), 자기자본(10% 이하)일 경우 농업인의 투자는 총사업비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측은 "지역발전협의회가 반대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농어촌공사에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 '가을꽃 핀 일곱 빛깔 상상 이야기!' 속으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11~13일 개최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일대에서 '가을꽃 핀 일곱 빛깔 상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2천 년 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 마한과 마한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는 7개 분야 70여종의 체험, 전시, 공연, 공연,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나주 원도심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리게 될 '마한상상 빅(BIG) 페어리드'는 금동관·금동신발 등 마한시대 출토 유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행렬 규모를 한층 키웠다.

마한시대의 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2019 마한군무 전국대회'는 기존 '마한 춤 경연대회'에서 명칭을 바꿔 수준 높은 전국 대회로 탈바꿈한다.

이 밖에도 인기 TV프로그램 복면가왕

을 패러디한 '마한인 복면가왕'과 나주시민 1000명이 함께하는 '천인 마한등'은 이번 축제 행사에 새롭게 편성됐다.

11일 남진·현숙·정수라 등 20여명의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축하쇼 MBC 가요베스트에 이어 12일 여성 듀오 다비치와 남태현(사우스클럽)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도 열린다.

18종의 체험프로그램 등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놀이 공간도 대폭 확대했다.

축제장 일대 2만 평 규모의 꽃 단지에 산책로와 사진 찍는 장소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물한다.

강인규나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마한의 후손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마한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정촌고분 금동신발 출토 5주년 특별전

나주박물관·문화재연구원 8일부터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희수)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가 공동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8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복암리 정촌고분-마한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든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사진) 출토 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첫 전시이다.

이번 특별전은 복암리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200여점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당시의 문화사적 흐름을 소개한다.



특히 특별전에는 백제문화의 정수인 무령왕릉 은제 탁자와 고창 봉덕리 고분 금동신발, 신라의 금동신발 중 가장 화려한 '식리종 금동신발'이 출품된다.

이번 특별전은 나주시 대표 문화축제인 '제5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11일~13일)'와 함께 진행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

## '농촌에서 추억의 1박2일' 성황리 마무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기여

나주시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의 1박2일 행사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시범운영한 '농촌체험여행' 프로그램 1박 2일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체험여행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별 특색을 살린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주요 관광지 탐방으로 연계, 구성해 총 4회(당일 3회, 1박2일 1회)로 실시했다.

지난 주말에 열린 4회차 프로그램은 세지면 화담마을 원예공예체험, 다시면 동비골마을 배재 쿠키 만들기, 노안면 이슬촌마을 농산물 수확체험, 문평면 명하쪽빛마

을의 쪽물 족욕 및 아로마테라피, 산포면 흥련마을의 연씨 발아 체험, 황포돛배 타기 등 5개 마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가족 A씨는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자녀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자녀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나주시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에는 현재 세지면 화담마을, 노안면 이슬촌마을, 금안함글마을, 산포면 흥련마을, 문평면 명하쪽빛마을, 다시면 동비골마을, 왕곡면 예곡왕곡마을, 덕실마을 등 8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4회에 걸친 농촌체험여행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지난 주말 나주시 문평면 명하쪽빛마을에서 열린 농촌체험여행에서 참가자들이 쪽물 족욕 체험을 하고 있다.

활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상생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나주만의 색

다른 농촌체험 관광 코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전국 대리점  
가맹점 모집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